말레이서 1200년 前 사원 유적 발견 '눈길'

동남아 고대 사원과 문화적 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

8~9세기 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
기단부 보존…유물도 다수 출토
해당지역 발견 유적 중 가장 커
케다 문명 관광 상품 개발 기대

김민재 객원기자

지난 9월 2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말레이시아 국립유산부와 말레이시아 국제 고고학 연구센터(GARC)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국립 유산부와 GARC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부킷 초라스에서 고대 불교 사원 구조물과 유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원은 인도 남부의 팔라바 왕조 시대(서기 275년~897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약 1,200년 전 건립되었다. 발굴된 사원의 면적은 9㎡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발굴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 중 가장 크고 건축적인 특징이 도드라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함께 발굴된 유물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사원 전체 구조도 그대로 유지한 채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월 28일 시작된 2주간에 발굴 작업을 통해 사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말레이시아 국립유산국 유소프 국장은 발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 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부킷 초라스에서 발견된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연구팀과 11개 지역의 대학 간에 체결된 MOU 시범사업을 통한 첫 발견으로 매우 의미 있다"며 사업의 실적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연구팀은 발굴지역 조사를 40%가량 마쳤으며 이번 발굴을 통해 그동안 관광 불모지였던 케다(Kedah, 말레이시아 북부)문명에 새로운 고고학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부킷 초라스에서 발견된 1,200년 전 고대 사원 전경. 사진출처=GARC

부킷 초라스 발굴팀을 이끈 GARC 수석 연구원인 나샤 콰 박사는 "이 사원의 서 · 남 · 북 방향의 벽과 기단부 위의 계단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부양 계곡에 있는 사원 유적지와 유사하여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스리비자야 제국의 발전 시기(7~11세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적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팔라바의 비문과 도자기 파편, 실물 크기의 회반죽 조각상들도 발견됐다"면서 "특히 이 회반죽 조각상은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서자바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부킷 초라스 고대 사원과 동남아시아의 고대 사원들과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말레이시아 세인트 대학 부총재인 압둘 라만 모하메드 교수도 참석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고고학 관광 상품 개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립유산부와 GARC가 협력하여 발굴 작업 및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부킷 초라스 고대 사찰의 미발굴지는 오는 12월까지 유물, 유적 발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호주 불광산 남천사, 국가유산 등재 검토

중국인 이민자 공동체 상징물
불교 호주 전래 주요 장소 평가

지난 10월 1일 호주의 주요 언론 'ABC뉴스'는 호주 불광산 남천사의 호주 국가문화유산 등재 검토 소식을 전했다.

호주 울릉공에 위치한 남천사(南天寺, Nan Tien Temple)는 대만 불광사(佛光寺)의 분원으로 1995년 개원했으며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으로 알려있다. 개원 30주년을 앞두고 호주 국가문화유산 등재 검토 중에 있으며 등재 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성화봉에 이어 두 번째 현대 문화유산이 된다.

남천사는 1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중국 당나라 전통 건축 양식의 8층 탑, 방문객과 순례자를 위한 처소, 중국 황궁 건축 양식의 대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천사의 마오 유 스님은 "남천사의 역사는 약 30년으로 문화유산 등재가 되기엔 다소 연대가 짧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천사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남천사는 1970년대 연방 이민법이 폐지된 후 7~80년대 후반 동남 아시아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며 창건됐다. 이민자들이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까지 한 것이 그 시작이다. 남천사에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현지인과 외국인이 관광 및 불교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1993년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스님이 호주 남천사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출처=남천사

울롱공 구의원 린다 캠벨은 "사원이 운영되어 온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을 포함한 많은 호주인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특히 명상 수업에 나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삶을 가꾸기도 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달 초 캠벨 의원와 울롱공 시의회 의원들은 사원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원의 신청에 승인 표를 던졌다. 울롱공의 시장 고든 브래드버리는 "남천사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울롱공으로 끌어들이는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조동종 총본산 불단, '국보급 장인' 조성

1월부터 하루 10시간 넘게 작업
옛 장인에 부끄럽지 않은 회향 염원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에이헤이지(永平寺)에서 사용하는 불단을 약 70년 만에 새로 조성하기 위해 현대의 장인과 불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화제다. 지난 10월 1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은 에헤이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식단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중부의 기후현의 산속에 위치한 히다(飛騨). 고대로부터 히다지역의 목수들은 사찰의 불단이나 목탑, 가구 등을 제작하는 데 뛰어나 '히다의 장인'이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다. 현대 히다의 장인들의 손으로 에이헤이지의 시식단이 새롭게 제작된다.

에이헤이지는 1244년 송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도겐(道元)선사가 개산한 고찰. 이곳 에이헤이지에서 현재 영가시식을 위해 사용되는 시식단은 1950년경 당시 히다의 장인들이 조성, 기후현의 세이슈지(正宗寺)의 이름으로 보시


시식단을 제작중인 이모토 마사히로 장인.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된 것이다. 그러나 7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온 시식단이 노후화 됨에 따라 에이헤이지와 시식단을 보시한 세이슈지는 새로 단을 조성하기로 결정, 처음 조성된 히다 지역의 장인들에게 신조성을 의뢰했다. 조성에 드는 비용은 세이슈지를 대표로 일본 각지의 4곳의 사찰과 신도들의 정재로 이뤄졌다.

제작되는 시식단은 폭 약 2.5미터, 높이 약 2미터, 깊이 약 1.8미터로, 상 주위에는 58장의 불탑조각이 ㄷ자로 둘러싸고 있다. 조성의뢰를 받은 '이모토 건축'의 장인 이모토 마사히로는 "의뢰를 받고 현재 사용 중인 시식단을 보는 순간 엄청난 중압감을 받았다. 나무는 주변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형된다. 선배 장인들이 그런 나무의 버릇을 모두 이해하고 계산하여 만든 걸작이었다"며 작업을 시작하던 때를 회상했다.

기후현에서 기능자로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는 이모토 장인은 "현재로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기술이 여기저기 보였다. 오히려 큰 동기 부여를 받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히다시에서 조성중인 시식단은 지난 1월부터 작업이 시작, 하루 10시간 넘게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투입돼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 각 부품이 완성될 때 마다 에이헤이지 측 전달, 부품들에 대한 검사와 기도의식 등이 끝나면 다시 히다로 가져와 옻칠을 시공했다.

시식단의 신조성을 이끄는 세이슈지의 주지 하라다 스님은 "많은 장인분들과 사찰들의 도움으로 후대에 또 70년은 이어갈 수 있는 시식단이 조성되고 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감상을 전했다. 에이헤이지에 시식단을 세우는 날은 10월 12일. 완성된 부품들을 가져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계획이다. 이모토 장인은 "후세에 이름이 남는 큰 불사다. 옛 장인들과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갤러리서 도난당한 17세기 불상 회수

불상만 표적으로…동기 미상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갤러리에서 야외 전시 중 도난 당했던 17세기 청동불상이 무사히 돌아왔다. 9월 28일 미국의 '스미소니언 매거진', '폭스 LA' 등의 외신들은 불상의 도난과 회수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8일 새벽,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바라캇 갤러리'의 마당에서 전시 중이던 청동대일여래상이 도난당했다. 갤러리 측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대형 청동불상으로 명문을 통해 1645년, 유노도산(湯殿山)의 고승인 료젠의 의뢰로 이이누마 타다조라는 조각가가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역사와 내력이 정확한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갤러리 측은 55년 전 이 불상을 입수했으며, 조성 당시 사찰의 본존불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갤러리 디렉터인 폴 핸더슨은 "당시 야외 전시장에는 불사보다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유물들이 함께 전시 중이었으나 오직 대일여래상만을 가져갔다"면서 "높이 120cm, 110kg가량의 불상만을


바라캇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후 회수된 대일여래상. 사진출처=바라캇갤러

노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9월 18일 새벽 3시 45분경 한 남자가 렌트한 밴을 타고 갤러리 마당으로 이어지는 문을 부수고, 불상을 운반해서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시간은 25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다.

불상의 행방이 묘연하던 중 로스앤젤레스 경찰당국은 렌트차량을 추적하는 데 성공,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불상도 안전하게 회수했다"며 "용의자는 자신의 범인을 시인했으나 왜 불상만을 노렸고, 불상으로 어떻게 처분하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사찰이 '숲속의 박물관'인 이유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불화, 전각 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나친 조각, 돌기둥, 장식 하나하나에도 사연이 있으니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최신간



노승대 지음 | 올컬러 | 432쪽 | 30,000원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40여 년 경력 사찰문화 전문 답사가와
함께 떠나는 절집의 '보물찾기'!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지음 | 512쪽 | 28,000원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주지스님도 몰랐던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400여 컷의 화보로 볼거리가 풍부한,
술술 읽으며 문화와 역사를 꿰는
크로스 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속 숨은 조연들
노승대 지음 | 456쪽 | 30,000원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에 얽힌 진귀한 비밀!
사찰이란 무대 위에서 황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왕, 저승사자, 사천왕, 금강역사,
나한 등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이들의 역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